

태풍도 비켜가고 다시 폭염... '혁혁'

'담레이' 한반도 무사 통과...광주·화순 짙통더위

제10호 태풍 담레이(DAMREY)가 한반도를 비켜가면서 또다시 폭염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2일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담레이는 이날 오후 3시 현재 중국 청다오 남동쪽 약 310km 부근해상에서 중국 중부 동해안 지역으로 빠져 나가 광주·전남 지역은 태풍의 영향권에서 완전히 벗어났다. 폭산도를 제외한 전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광주·전남 지역은 이날 태풍의 간접영향권에 들면서 진도 25.7도, 강진 29.5도, 완도 29.9도 등 일부 지역에서는 무더위가 다소 누그러졌다. 또 신안 가거도에는 14mm의 비가 내렸다. 하지만 광주 등 내륙지역은 따뜻한 바람이 유입되면서 광주 34.1도를 정점으로 화순 34도, 구례 33.4도, 곡성 33.1도 등 33도를 웃도는 짙통 더위가 계속됐다. 기상청은 폭염이 주말과 휴일까지 이어지다가 차츰 누그러질 것으로 전

망했다. 3일 광주·전남지역은 고온 다습한 북태평양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광주·나주·순천·장성 35도를 최고로 대부분 지역의 낮 기온이 33도 이상 오르겠다고 기상청은 예보했다. 이와 함께 열대야 현상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은 주말과 휴일인 4~5에도 낮 기온이 33~35도까지 오르는 등 더위가 계속되다가 6일 오후부터 낮 최고기온이 30~32도 사이로, 다소 떨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광주·전남 전역에 내려진 폭염특보(경보 13곳, 주의보 10곳)는 당분간 계속될 것이다. 한편 광주·전남 7월 폭염일수는 9일로 지난 1994년(24일), 2005년·2008년(11일)에 이어 4번째로 많았으며, 평균 기온은 26.4도로 평년(25.6도)보다 0.8도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기상청은 폭염이 주말과 휴일까지 이어지다가 차츰 누그러질 것으로 전



축사에 물뿌리기

광주의 낮 최고기온이 34.1도까지 올라간 2일 광주시 북구 장등동 장동마을 한 한우농가에서 북구청 직원들이 폭염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축사 내·외부에 물을 뿌리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재소자들도 “더워서 못살겠다”

광주교도소, 얼음물·빙과류 지급...반바지 착용·상의 탈의 허용

냉방시설을 갖추지 못한 광주 교도소 수형자들이 연일 계속되는 폭염을 이기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일부 수형자는 전기면도기에 프롤라를 끼운 '면도기 선풍기'를 쓰다가 압수당하는 사례까지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광주교도소 측은 수형자의 건강을 고려, 1일부터 몇 차례에 걸쳐 얼음물과 빙과류를 지급하기로 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광주교도소는 2일 “35도가 넘는

냉방시설을 갖추지 못한 광주 교도소 수형자들이 연일 계속되는 폭염을 이기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일부 수형자는 전기면도기에 프롤라를 끼운 '면도기 선풍기'를 쓰다가 압수당하는 사례까지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광주교도소 측은 수형자의 건강을 고려, 1일부터 몇 차례에 걸쳐 얼음물과 빙과류를 지급하기로 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광주교도소는 2일 “35도가 넘는

바지 착용 및 상의 일부 탈의 등도 허용했다. 1971년 건립된 광주교도소는 한 방에 6~7명이 수용돼 있으며, 냉방시설이 없어 선풍기 1대로 살인적인 더위를 피하고 있다. 광주교도소 관계자는 “예산이 넉넉지 않아 충분히 지원할 수는 없지만 주어진 여건에서 수용자들이 여름을 건강하고 시원하게 보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오늘 날씨

해돋이 05시 43분
해질 19시 34분
달출 19시 59분
달질 06시 42분

낮 최고 35도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구름이 많겠다.

지역	구름량	최고/최저
광주	구름많음	26/35℃
목포	구름많음	26/35℃
여수	구름많음	26/35℃
나주	구름많음	25/35℃
완도	구름많음	25/35℃
구례	구름많음	25/35℃
강진	구름많음	25/35℃
해남	구름많음	25/35℃
장흥	구름많음	25/35℃
순천	구름많음	25/35℃
영광	구름많음	25/35℃
진도	구름많음	25/35℃
전주	구름많음	25/36℃
군산	구름많음	26/35℃
남원	구름많음	23/35℃
혁신도	구름많음	25/32℃

(오전) 바다	중랑	파고	식중독지수	자외선지수	피부질염지수
서해 남부 앞바다	동~남동	1.5~2.5m	경고	매우높음	높음
남해 서부 앞바다	동~남동	1.0~2.0m			
남해 서부 앞바다	동~남동	2.0~3.0m			

(오후) 바다	중랑	파고	밀물	썰물
서해 남부 앞바다	동~남동	1.0~2.0m	목포 03:01	08:12
남해 서부 앞바다	동~남동	1.5~3.0m	목포 15:04	20:15
남해 서부 앞바다	동~남동	0.5~1.5m	여수 09:44	03:39
남해 서부 앞바다	동~남동	1.5~3.0m	여수 22:16	15:42

◇주간날씨

날짜	4(토)	5(일)	6(월)	7(화)	8(수)	9(목)
날씨						
최저/최고	25/35	25/35	25/33	24/32	23/32	23/32

연일 무더위에 눈병 유행 조짐

급성결막염 환자 7% 급증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 속에 눈병까지 유행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질병관리본부는 전국 80개 의료기관이 참여한 '안과감염병 표본 감시체계'를 통해 지난달 22~28일 모두 1095명의 유행성각결막염 환자가 병원을 찾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2일 밝혔다. 이는 앞서 4주동안의 환자 수(1076명)보다 1.74% 늘어난 것이다. 특히 같은 기간 아플로 눈병으로 알려진 급성출혈성결막염 환자 역시 이전 4주(168명)에 비해 7%이상 많은 180명이나 보고됐다. 연령별로는 유행성각결막염의 경우 0~9세가 23.5%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10~19세 18.9% ▲30~39세 13.3% 등의 순이었다. 급성출혈성결막염도 0~9세의 비중이 23.9%로 가장 컸다.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유행성 눈병인 유행성각결막염과 급성출혈성결막염이 예년보다 더 유행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며 “특히 휴가철 집단 활동을 통해 확산될 가능성이 큰 만큼 손씻기 등 개인위생에 신경써야 한다”고 당부했다. /연합뉴스

교과부, 청소년 체험학습 지도교사 동행 지시

최근 무인도 체험학습을 하던 학생이 숨지고 청소년탐험대 국토순례 중 폭행·성추행 사건이 발생하는 등 사고가 잇따르자 교육 당국이 체험학습 업체를 사전에 확인하고 지도 교사가 동행하라고 일선 학교에 지시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최근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 수련활동을 비롯한 각종 체험활동에 대해 사전 안전조치를 강화하도록 하는 지침을 보냈다고 2일 밝혔다. 앞서 지난달 25일 경남 김해의 한 대안학교에서 장소 사전 점검이나 인솔교사 동행 없이 신안 무인도 체험을 갔던 학생 2명이 실종된 지 닷새 만에 숨진 채 발견됐다. /연합뉴스

치매 가을 70대 폭염 사망한 듯

2일 새벽 2시10분에 광주시 서구 덕흥동 한 아산에서 오모(75)씨가 쓰러져 숨져있는 것을 아들이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아들은 경찰에서 “치매에다가 지

난해 위암 수술까지 받은 아버지가 1일 오전 9시에 집을 나간 뒤 돌아오지 않은 아들이 함께 찾아다녔다”고 말했다. 경찰은 치매를 앓고 있는 오씨가 인근 아산을 해매다가 폭염에 쓰러져 사망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전남대 '교육 교류협력 프로젝트' 선정

전남대는 경북대와 함께 교육과학기술부, 유럽연합(EU) 대표부의 교육 교류협력 프로젝트인 'ICI(산업국가기) 교육협력 프로그램' 수행 대학에 최종 선정됐다고 2일 밝혔다. 전남대와 경북대는 지난 3월 있었던 관련 공모에서 컨소시엄을 구성해 '한-EU 대학간 3+1 복수학위프로그램'을 제안, 11개의 대학 컨소시엄과 경합한 결과 가장 우수하다고 인정받았다. 3+1 복수학위 프로그램은 IT와 경영 학부과정 학생들이 학위과정의 25% 이상을 유럽 대학에서 수학하고

한국과 유럽 대학의 학위를 동시에 받도록 설계됐다. 전남대와 경북대는 헝가리 부다페스트기술경제대학, 폴란드 바르샤바대학, 슬로베니아 류블랴나대학, 영국 노샘프리아대학 등 5개 대학과 함께 내년부터 4년간 142명의 학생과 20명의 교직원을 교류한다. 컨소시엄에 포함된 대학들은 한국 연구재단과 EU 대표부로부터 약 11억원의 예산을 받아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학생들의 체제비와 왕복항공료 전액을 지원하고 학점도 인정해준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광주교대 총장 공모 3명 출사표

이동우·이정선·조길환 교수

전국 11개 교원양성대학 중 처음으로 공모제 총장 선출에 나선 광주교대 후보 접수 결과 3명의 교수가 도전했다고 2일 밝혔다. 총장 후보로 나선 이들은 광주교대 소속 이동우(52·체육교육과) 교수와 이정선(53·교육학과) 교수, 전남대 부총장인 조길환(60·건축학과) 교수 등 3명이다. 학내 교수들의 투표를 통해 총장을 뽑는 직선제와 달리 공모제의 경우 총장임용추천위원회 구성원들의 투표로 총장이 선출된다. 광주교대의 추천위는 교수 12명, 직원 2명, 학생 1명, 졸업생 대표 2명, 교육감이나 지자체장(1명), 교육

전문가 2명 등 20명으로 구성돼 있다. 광주교대 측은 오는 9일 후보자들이 교내구성원을 상대로 교대 발전 계획 등을 논의하는 토론회를 열 방침이다. 이후 추천위는 17일 서면과 심층면접평가를 거쳐 3명 이하 후보자를 선발한 후 투표를 거쳐 1, 2위를 현 광주교대 총장에 통보할 예정이다. 교과부의 임명이 결정되면 신임 총장은 10월23일부터 임기를 시작한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대한불교조계종 문민정사 남골당 허가번호 : 제2006-1

극락전 남골당

선망부모와 당신의 묘지를 누가 관리하겠습니까?

모든 이들의 영원한 안락과 쉼터

가깝고 편안하고 아름다운 곳!!

무등산 문민정사 극락전 남골당이 있습니다

- **후손들의 무관심과 관리소홀** 별초를 하지않아 황폐화된 묘, 때가 벗겨진 묘, 동철기를 거치며 붕괴된 묘, 개인이 가족의 만연과 전통적인 집단묘 및 친족, 이웃간의 상충부조의식 해일로 전국 무연묘 묘는 총 묘지 2천만기의 40%인 800만기에 달하고 있습니다.
- **비싼 자연재해로 인한 유실과 훼손** 여름철 집중호우와 산사태로 인한 묘지 유실과 훼손은 전국적으로 해마다 수 없을 만큼 많습니다. 묘지유실은 물론이고 심지어 사신마저도 유실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사신에도 해로운 매장** 이장을 해본 사람들은 분분 속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이승보다 더욱 편안해야 할 사신이 나무 뿌리와 벌레, 습기의 침해로 심하게 훼손되어 있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 **깨끗하고 편안하게 모시는 정례법** 조상을 멀리 떨어진 산에 도셔 거친 자연환경과 천재지변 속에 두고 두고 고통받게 하는 것보다 화장을 하여 남골당에 봉안하면 언제나 깨끗하고 편안하게 모실 수 있습니다.

- 문민정사

무등산 문민정사 남골당 전경

무등산 문민정사 남골당 예약 및 봉인문의 062) 228-0108, 010-5103-4004, 010-7179-0108

아이엘리시아

특허청 서비스표등록 제41-0187289호

주류서비스

성인1인당, 평일방문 고객께

맥주 or 소주 1병
와인 or 생맥주 1잔 **백1**

150여가지의 즉석메뉴(샐러드, 양식, 일식, 중식, 한식)를 온 가족이 마음껏 취향에 따라 드실수 있는 **즉석 프리미엄뷔페!!**

가격안내
(이용시간: 11:30~22:00)

- 평일 성인(중학생이상) 25,000원
- 토·일·공휴일 성인(중학생이상) 29,000원

각종 모임 및 행사예약 (150석, 92석, 52석, 32석, 24석, 12석)

● 돌잔치, 피로연, 회갑연, 칠순연, 세미나 | ● 출장뷔페, 도시락

예약문의 062)671-1199 | 광주종합버스터미널 2층

24시 유스퀘어사우나

각종 편의시설 수면실(침대) · 인터넷 · 안마기 · 세션 · 세화

유스퀘어 2층 아이엘리시아 옆 문의전화 062) 352-4455 | 터미널 주차장 2시간 무료